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9. 2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예정 안전은 아직
확정된 바 없음 (서울경제 2.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전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,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바, 안전별 처리방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
- ◇ 2월22일 서울경제 <한전 전력데이터 민간 활용길 열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의 길이 열렸고, 휠체어 보조키트의 상품화가 가능해졌음
- ② 그 외 3개 안전은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전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,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바, 안전별 처리방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

※ 문의: 산업기술정책과 김대자 과장/김종락 사무관 (044-203-4515)